

# 인도, '구걸의 그릇' 반환 첫 걸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비크샤파트라(bhikshapatra, 구걸의 그릇)'로 부르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가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원래 있었던 인도 바이샬리(Vaishali)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인도TV(India TV)〉는 1월 14일(현지 시각) 인도 고고학 조사 위원회(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이하 ASI)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ASI 측이 이달 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국립 박물관으로 3명의 고고학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전하고, "이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일명 '구걸의 그릇'을 정밀 조사하고, 원래 있었던 바이샬리로 이송하기 위한 논의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8월 바이샬리의 프라세드 싱(Prasad Singh) 총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구걸의 그릇'이 원래 있었던 곳인 바이샬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단초가 됐다.

ASI 측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바이샬리를 떠나기 직전 이곳 주민들에게 '구걸의 그릇'을 선물했다. 이후 인도가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구걸의 그릇'은 바이샬리에서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 칸다하르(Kandahar)로 옮겨졌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한창일 때인 1980년 카불로 다시 옮겨져 지금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됐다.

B.R. 마니(Mani, ASI 조사팀 감독관) 박사는 "3~9세기 이곳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순례기나 여행기에도 '구걸의 그릇'이 등장하고, 19세기 페샤와르와 칸다하르 일대에 머물렀던 영국군 장교의 사진첩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소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는 붓다가 인도 주민에 선물한 것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반출돼

'구걸의 그릇'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2001년 탈레반 반군이 불교 유물을 파괴할 때, '구걸의 그릇'도 파괴 대상이었으나, 그릇의 상단에 6행으로 코란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절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질은 회색 빛깔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구걸의 그릇'은 너비 약 1.75m, 높이 약

4m, 두께 18cm, 무게 400kg으로 그 규모가 대단하고, 그릇의 표면에는 연꽃의 꽃잎이 섬세하고 조밀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여기에 이슬람 제국의 지배기에 여기저기 옮겨지면서 그릇 상단 테두리에 6행으로 코란 내용이 덧새겨져 이채롭기까지 한다. 이는 이슬람 제국의 지배기에 불교를 훼손했던 역사적인 상처이지만, 2001년을 전후해 아프가니스탄 내 불교 유물이 파괴되고 훼손될 때에도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한편 인도TV는 "인도 정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대불의 파괴를 기점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불교 유물에 대한 보존에 관심을 보였다"며 "구걸의 그릇"에 대한 인도 정부의 반환 행보의 배경을 설명하



'구걸의 그릇'으로 불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우,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립박물관 소장. 화강암 재질. 너비 1.75m, 높이 4m, 두께 18cm, 무게 400kg. 문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랫동안 주석했던 바이샬리를 떠나며 주민들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진다. 그릇 표면 전체에 연꽃의 꽃잎이 섬세하고 조밀하게 조각되어 있고, 그릇 상단 테두리에 코란 내용이 6행으로 덧새겨져 있다.

고, "ASI의 카불 조사팀은 인도 문화부와 외부부의 승인을 받았고, 두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카불 국립박물관 등과의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측은 "우리는 이 유물 이름을 'bhikshapatra (구걸의 그릇)'으로 명명했다"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사원 경내 초입에 놓인 돌구 유처럼, '구걸의 그릇' 역시 고대 불교 사원의 입구에 봉안되어 불자들의 보시 물품을 담았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ASI 측이 파견한 조사팀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에 피어나는 '캄보디아 연꽃'

## 50여 세대 캄보디아 불교공동체, 사원 개원 희망 키워

미국 오하이오 주의 우드카운티에 소재한 불링 그린(Bowling Green)에서 '캄보디아 연꽃'이 피어나고 있다.

〈데일리 뉴스(Daily News)〉지는 1월 19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이민 2세인 프레이버거(Thyda Freiberger), 김벌리 비터링(Kimberly Bitterling) 두 자매가 불링 그린 최초의 캄보디아 불교 사원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프레이버거와 비터링은 보링 그린 내 50여 세대의 캄보디아 가정들 기반으로 '아흐람 메인자이(Ahram MeinJai)'라는 캄보디아 불교공동체를 결성하고, 최근 사원 부지 확보에 이어 건축 기금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캄보디아 사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비터링은 "사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일구며 살았던 캄보디아의 마을 풍경을 부모님에게서 들을 때마다, 우리 두 자매는 '불링 그린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 뉴스〉지에 따르면 불링 그린의 캄보디아 불자들이 예불을 올리기 위해 사원을 가기 위해서는 세 시간 남짓 운전해 내슈빌로 이동해야 한다. 인근에 미얀마 불교사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얀마인과는 언어 소통이 불가능해 캄보디아 불자 대부분 미얀마 사원을 몇 차례 방문하고는 등을 돌리는 실정이다.

이는 프레이버거와 비터링 두 자매가 캄보디아 불교 사원을 짓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캄보디아 불교공동체 아흐람 메인자이(Ahram MeinJai)는 지난 2012년 불링 그린 지역에 약 5에이커(약 2,200제곱



미국 오하이오 주 우드카운티에 소재한 불링 그린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불자들이 예불하는 모습.

미터)의 부지를 확보, '아흐람 메인자이'라는 뜻말을 세우고, 캄보디아계 토르(Tor) 스님을 증명법사로 초빙했다.

그러나 예불이나 소모임은 각 가정의 거실에서 봉행하고 있다. 프레이버거는 "아직까지 설계 및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내슈빌, 매피스, 테네시, 신시내티, 클리블랜드 등의 도시를 순회하며 캄보디아 불교 사원 건축 기금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링 그린의 캄보디아 불자들의 모금 캠페인에는 캄보디아-태국계 가수 제인 사이자이(Saijai)도 정기적인 자선공연을 진행하며 참여하고 있다.

토르 스님은 "아흐람 메인자이 불교사원의 건축은 불링 그린 지역에서의 캄보디아 불교공동체의 사원이자 캄보디아의 불교전통이 세대를 이어갈 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데일리 뉴스〉지는 "젊은 세대는 그들의 자신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는 비터링의 말을 인용, "그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길 바라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질지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자신에게 맞는 스승 · 도반 찾아드려요"

## 美 플로리다서 '마인드 바꾸는 날' 행사 열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마인드를 바꾸는 날(Change Your Mind Day)' 행사가 플로리다에서 1월 25일 열렸다. 이 행사는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 불교도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전통은 1993년 트라이클(Tricycle)이란 불교계 잡지가 흘러져있는 불교단체의 모임을 기획하면서 시작됐다.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사상과 수행법을 알려주기 위해 불교 단체가 모여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무료로 명상법을 가르쳐준 것이 시초인 셈이다.

종파를 넘어선 범연대 불교조직 불루시아 불교 단체의 모리스 셰이코 שלי벤은 "소도시일 수록 이러한 요구가 증가한다"며 "미국 플로리다주 불루시아카운티에 있

는 드랜드(De Land)에서 행사를 열었을 당시 150명이나 모였다"고 말했다.

이번 해는 미국 플로리다주 티투스빌 지역 밌스(Mims)에 위치한 화이트 샌드 불교센터(White Sands Buddhist Center)에서 열렸다. 베트남식 불교 수행을 표방하는 곳이지만 이날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종파 관계자들이 불교 수행과 명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10시부터 4시까지 열린 이날 행사는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שלי벤씨는 행사의 의의에 대해 "부처님은 45년간 설법하시며 가르침을 주셨고, 사람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를 따른다. 행사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승과 도반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불교는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밌스에 위치한 화이트 샌드 불교센터에서 열리는 '마인드를 바꾸는 날(Change Your Mind Day)' 행사는 종파를 초월한 불교도들의 만남의 장이다.

종교 중 하나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불교 인구는 2백만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뉴스 저널지에 따르면 불교가 믿음보다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해 기존 신앙을 저버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뉴스 저널지의 보도를 보면 미국 내 불교 인구는 이보다 높지 않을 까라고 추정된다. שלי벤씨는 "기독교인이면서 불교 수행을 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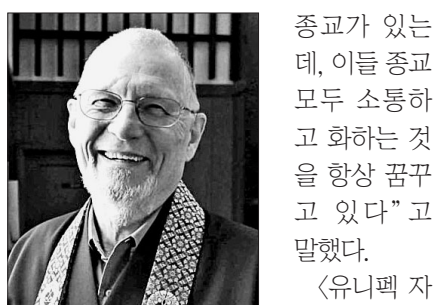
# 불교로 개종한 목사, 종교간 소통 이끈다

## 캐나다 울리히 법사, '위니펙 종교 모임'으로 종교간 대화 주축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주도 위니펙에서 '종교간 대화를 실천하는 노령의 법사' 하면 어김없이 프리드리히 울리히(Fredrich Ulrich · 80)〈사진〉 법사가 꼽힌다. 지역 매체 〈위니펙 자유 언론(Winnipeg Free Press)〉가 14일 전했다.

울리히 법사가 지역 명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74세까지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다 불교로 개종, '위니펙 종교 모임'을 결성해 종교간 소통에 남다른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감리교 목사로 설교하고, TV 출연했다"는 울리히 법사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니펙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들 종교 모두 소통하고 화하는 것을 항상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위니펙 자유 언론〉은 울리히 법사의 말을 인용, "종교간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사유와 가치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그것을 맑게 하는 것에서 종교간 소통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며 울리히 법사의 말을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정,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공,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전도, 49재, 지장칭, 시왕도칭, 전사시,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회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찰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대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승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 입학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리 1095-1 대한불교영남총회총종사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의처** : 010-3544-2605 / TEL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2기)

- 회원대상** :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 수련기간** : 2014년 2월 5일(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시간씩 (14시~16시 반 혹은 18시~20시 반) 3개월간 선착순 10명, 회비 30만원 (10만원 \* 3개월), 수료증 수여.
- 수련내용** : 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실습 영성의 중심 기동 세우기 실습 등
- 학습내용** :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펜링(행복)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희전생과 카르마(자기동일성)의 법칙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견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레이키(氣 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은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사**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수백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